

<b>안 그래픽스</b>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b>구나영 보험</b>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b>리 장례식장</b>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b>PIWC Group Agency</b> 자동차 · 집 · 사업체 · 중립원 상해 보험 강민욱 베드로 404-644-8658	<b>SB 건축&amp;철공</b>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b>오즈 냉 동</b> 에어컨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b>AAA Insurance</b> <b>이창호 보험(바오로)</b>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3483 Satellite Blvd Ste.310 S Duluth, GA 30096	<b>SMILE 1 DENTAL GROUP</b> <b>스마일원치과</b>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b>Brighter Smiles</b> <b>잔스크릭 치과</b> 광상범 라파엘 이수산나 470-719-0213 www.brsmilesdmd.com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b>ALFONE LIFE</b> <b>메디케어 / IRA / 연금</b> <b>생명보험 / 오바마케어</b>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b>RIVERBEND</b> Tire & Auto Service, Inc. <b>SONAMOO</b> 소나무 Auto Repair <b>리버밴드 오토</b>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b>미소 치과</b> <b>남상우 시몬</b> <b>남수진 세실리아</b>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b>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b>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 테레사 보험 714-579-5422	<b>Peachtree Physical Therapy</b> <b>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b>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	<b>FARMERS INSURANCE</b> <b>로렌 배 보험 (모니카)</b>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b>배용자 루시아</b> <b>보험금융</b>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MILLION REALTORS, INC.</b> CEO/Broker <b>마크 우 공인부동산</b> Million Realtors INC 770-885-3276 주택전문/부동산 투자25년 경험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b>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b> <b>더조은 적축</b> <b>박찬규 레오</b>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b>State Farm</b> 자동차, 주택, 생명, 비즈니스, 건물, 종업원 상해 보험 <b>송규형 루카</b> 770-361-5655 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 GA 30340			
<b>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b> <b>김옥경 에밀리 부동산</b> M. 770-912-8282 O. 404-843-2500	<b>kw KELLERWILLIAMS.</b> <b>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b> Juliana OH 678-908-4945	<b>명품중식 레스토랑 만천홍</b>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b>SINCE 1999 VINEYARD REALTY</b>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b>조셉 김</b> 678-361-6230 <b>켈리 김</b> 770-634-5646 부동산 전문인	<b>Pinehill Realty</b> <b>조앤리 아네스 부동산</b>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b>Wee dot!</b> <b>로사리오 평생대학에서</b>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정검다리 회원 모집합니다. (차세대 임원 및 봉사인원 필요합니다) ·강사문의 환영합니다. 은전 베네딕토 404-308-032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b>정승욱 미카엘 변호사</b>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벌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b>오약국</b>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오민환 파비아노 10820 Abbotts Bridge Rd, #240	<b>주님!</b> <b>사랑신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시니</b>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jubo@gmail.com			
<b>교통사고 상해</b> <b>이종원 미카엘 변호사</b>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뜨 맞은편)	<b>Fairway Home Loan</b> *주택융자 *상업융자 <b>최윤석 융자</b>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b>GIFTS</b> <b>GOLD · CROSS · REPAIRS</b> ·십자가, 성상 ·성화, 목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셔츠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b>TOP 조정</b> Lawn Maintenance <b>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b>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 순교자 주보



**에블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4년 4월 28일

NO.2249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젤로스

## 부활 제 5 주일

## 미사 시간 안내

**성가** 입당: 132      봉헌: 35, 220      성체: 174, 165      파견: 129

**제1독서** 사도행전 9,26-31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화답송** 주님 -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 나이다.

**제2독서** 요한 1서 3,18-24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요한 15,1-8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00am
교중미사	10:00am
영어미사	11:45a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1-8)

맛난 포도

배영길 베드로 신부

좋은 땅.  
좋은 나무.

모든 조건이  
좋다 하여  
맛난 포도가 되는 건 아니지.

좀 부족했지만,  
좀 어설프지만,  
좋은 햇볕을 받은 우리는  
참 멋진,  
참 맛난 포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잘 키우도록 주신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사제를 주시어 직접 기르시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기꺼이 내어 주신 어머니들의 숨은 희생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오랫동안 병고로 고생하시던 사제 어머니가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 몇 번 찾아 뵈었던 분이고, 참으로 신심이 좋으시고 너그러우시며 기도 속에 사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신부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몇 번 뵈었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위하여 고별사를 써 달라는 문의를 들어왔을 때, 정말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거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를 되새김질 할 때, 마음이 무척 아파오기 시작하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제로 봉헌하고 나서 겪었던 아픔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이역만리에서 아픈 노모를 생각하며 눈물 짓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으로 가슴이 저며와 영영 울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마음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마음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랍게도, 자매님 방문할 때마다 한 마디 한 마디 해 주신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를 고이 간직하여 아들 사제를 위해 기도 주머니에 넣어 주님께 맡기셨는데, 그 주머니를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머니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것 몇 가지를 꺼내어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유언보다 더 진한 예수 성심에 적혀 있는 사랑 - 아드님을 아끼지 않고 봉헌하신 그 어머니의 장하심을 당신이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엠마오 소풍

최근 상담을 종결한 중학생 윤성(가명)이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소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욕하며 대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소위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합심리검사와 상담을 의뢰하시며, 이왕이면 상담사가 '남자'였으면 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이지만,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때문인 것 같으면서 좋은 남자 어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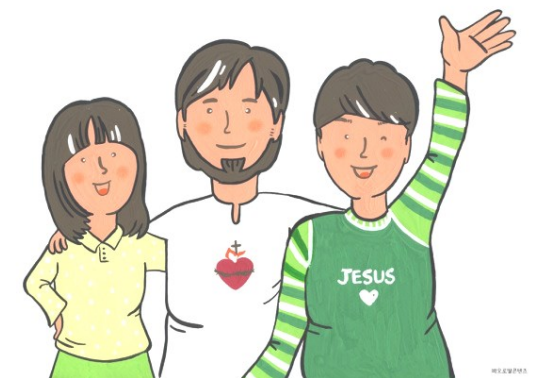
종합심리검사 해석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윤성이에게는 어머니의 말씀과는 달리 사뭇 진지하고 바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고, 아주 바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윤성이와 친해지기 위해 농담을 섞어가며 일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성이가 저와의 관계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라포 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윤성이도 그간의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이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당시 겪었을 심정에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일련의 상황들 안에서 윤성이가 했던 노력이나 그 아이의 좋은 부분들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어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성이는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제가 쳐주는 박수를 따라 치곤 하였습니다. 이후엔 가족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우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찾았습니다. 윤성이는 욕설과 큰소리, 체벌을 멈춘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 어머니를 예전보다 더 존중해 드리며, 동생은 적어도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뇌의 기관들이 완전히 성숙하

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와 주의 집중, 상황 판단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등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에 뇌가 완전히 성숙한 성인에 비해 감정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능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특히 감정을 다룰 때는 이 점을 유념하고,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청소년들의 그런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들에 휩쓸리거나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반하시며 보여주시는 모습에서도 좋은 어른의 표양을 발견합니다. 요 며칠 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 해석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고파 하는 바람을 물리치지 않고 먹을 것을 나누기까지 하시며, 정서적, 신체적 돌봄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부활을 돕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지원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센터)  
<출처: 서울주보>



#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계시, 신학 등이 많은데, 그중 '부활'은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해, 사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루카 23장), 티베리아스 호숫가(요한 21장) 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했던 사도 바오로(사도 9장) 역시 중요한 증인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당연히 무덤 이 비었다는 사실이 부활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부활하셨다면 무덤은 비었어야만 합니다. 그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지만, 무덤이 비었어야 부활을 상상할 수 있기에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과 관련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후 그분이 부활하셨을 거라 기대나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요한 20,1)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계속 무덤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녀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요. 아마도 부활하신 육신은 다른 얼굴과 몸, 다른 음성이나 모습 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못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즉 예수님께서 평소 그녀를 부르셨던 것처럼 "마리아야!"하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왜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고, 왜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왜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에, 그분의 외모와 음성은 달라졌지만 평소 그녀를 부르시던 모습을 기억 하였고, 부활하신 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하느님 사랑의 힘이고, 사랑은 부활을 알아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깊은 신비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믿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골로 3,14)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주일 가족미사 후 식사 봉사

정년미사 후 식사 봉사

망치회 김밥/컵라면 판매

도서 판매

유아세례

박로아(Gabriella), Niko Choy (Ezekiel) 유아세례가 4월 20일(토)에 있었습니다.

장례미사

故 김희대자 고렐다님의 장례미사가 4월 19일(금)에 있었습니다.

대건 한국학교 동요대회

레지오 마리에 봄 맞이 화단 정리  
레지오 마리아에서 성당 외관 화단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화단을 예쁘게 가꾸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성소주일을 맞아 초등부 저학년(프리케이-1학년)아이들이 수도복 입어보기 체험과 액티비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쓰그룹 학생들이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면서 좋았던 것들과 서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방법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알파레타에 위치한 아이스 스케이팅장에서 소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Brian Engelhart SJ, Mitchell Tu SJ 예수회 수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사님의 성소이야기를 듣고, 초등부 3-5학년 학생들은 라파엘 신부님과 함께 성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